



2023년 10월 29일(제1164호) 연중 제30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구걸하시는 그분”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선배 학사님과 외출을 나갔습니다. 나름 변화가에 나가서 이런저런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에 가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걸하는 분들. 그런 모습을 언제나처럼 참 당연하게 있겠거니 하고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이 외출 나간 형과 함께 그 걸인분 앞을 지나가는데, 그 형이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적지 않은 돈을 그분께 주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꼬여있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저 사람들 속이는 거래. 그래봤자 술사 먹고 그런대!”

당당한 목소리로 형에게 숨겨진 진실을 얘기해주듯이 거창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이어진 그 형의 말이 저에게 아직도 잊히지 않은 채, 살면서 남아있는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가훈아, 나 예수님한테 드린 거야.”

아... 저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야.’, ‘예수님께 드린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속이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돈을 쓰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

는 비참한 그 사람에게 작게나마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 그렇게 작게나마 예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렇듯 주님께서 먼저 가장 작은 이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무관심과 차가움이 더해져 가는 이 세상에 제 마음을 꿰뚫어주는 참 아픈 성경 구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잘 안되면,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 되어 더 커진다고 하죠. 우리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때문ですよ!



윤기훈(미카엘) 신부
백두산(육군 제21보병사단) 성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탈출 22,20-26 |
| 회 답 송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 제 2 독 시 | 1테살 1,5ㄴ-10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 복 음 | 마태 22,34-40 |
| 영 성 제 송 |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여덟 번째 시집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종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교하여 자유로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맏아들 최(양업) 토마스가 모방 신부님의 주선으로 마카오에 보내져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 즉 형조(刑曹)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던 용감한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되어 마리아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불충실한 배교를 용감히 취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유혹을 용감히 이겨내고, 또 모정에서 오는 모든 나약한 생각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갇난아가 기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 아들(최양업 신부와 갇난아기)을 하느님께 바친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들에게 구원에 유익한 말과 모범으로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최희정) 야고보는 한 달 이상 감옥에 줄곧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형조에서 관례대로 세 차례의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다. 사형 날이 가까워 오자 평온한 모습으로 야고보를 불러 마지막 훈계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타일렸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고 감옥 전체가 형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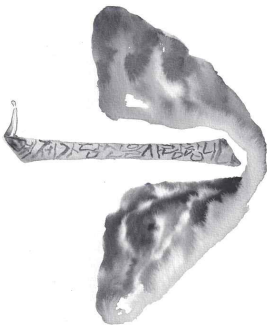
마리아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야고보에게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증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라고 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하자.

마지막에 남을 것.

한 마디만 되뇌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를 위한 미중를 #8

선교 활동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께서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으며”(1티모 2,4-6)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사도 4,12)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알게 된 그분께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 또 그분과 그분의 몸인 교회에 세례를 통하여 합체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자기의 탓 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특권한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서 선교 활동은 오늘도 또 언제나 그 온전한 힘과 필요성을 지닌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충만히 찬양을 받으신다. 그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의식적으로 또 완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출처: 『제2차 비티칸 공의회 신교교령』, 한국진주교중앙협의회, 7행 발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교구소식 </div>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장항세리핍 유병국 신부
<p>◆ 교구장 동정</p> <p>- 노도(제2신속대응사단) 성당 사목방문</p> <p>때: 10월 29일(주일)</p>	<p>◆ ‘군중의 시간’ 안내</p> <p>때: 주일 오전 8시 ~ 9시</p> <p>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p> <p>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p> <p>많은 청취 바랍니다.</p>

“신교의 열매, 세례성사!”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마태 28,19)